

# 심층분석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2026.04.14

## 심층분석보고서: IBK캐피탈 일반분야

### 제1장. 여신전문금융업(캐피탈) 산업 분석

#### 1-1. 캐피탈 산업의 정의와 법적 기반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총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 가운데 캐피탈사, 다른 말로 비카드 여전사(여신전문금융사)는 예금 등 수신 기능 없이 여신(대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지점은 '수신 기능의 부재'입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이라는 저렴한 자금 조달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캐피탈사는 그러한 기능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피탈사는 회사채(여전채), 기업어음(CP), 은행 차입,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시장성 조달 수단에 의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조달비용이 은행 대비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적 조달 불리는 캐피탈사의 존재 이유를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조달비용이 높으므로 은행과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고객을 놓고 경쟁하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피탈사는 은행이 취급하기 어렵거나 취급하지 않는 틈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저신용 기업대출, 자동차 리스·할부, 부동산PF, 벤처투자, 인수금융 등이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은행보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은행보다 높은 금리(스프레드)를 받는 것이 캐피탈사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며, 이 때문에 리스크 관리 역량이 캐피탈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면접에서 "캐피탈사가 은행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예금을 안 받는다"는 표면적 답변이 아니라 이 구조적 논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차별화됩니다.

#### 1-2. 110조원 규모의 시장 구조와 성장 궤적

캐피탈 산업의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상위 6개 캐피탈사(현대캐피탈,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현대커머셜)의 자산 총합만으로도 2024년 3분기 기준 약 110조 8,225억원에 이르며, 전년 동기의 106조 4,703억원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이른바 '10조 클럽'에는 현대캐피탈(약 39~41조원), 하나캐피탈(약 18.9조원), KB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의 7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BK캐피탈도 총자산 약 11.8조원으로 이 대열에 합류해 있으며, 규모로만 보면 신한캐피탈(약 12.4조원)이나 우리금융캐피탈(약 12.1조원)과 유사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분기부터 업권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평균 약 2.5%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 부동산PF 정리에 따른 자산 축소, 금리 하락에 따른 신규 취급 스프레드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기존 대출의 고금리 수익은 유지되지만 신규 취급 건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역마진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며, 이것이 업계 전반의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IBK캐피탈은 총자산이 11.2조원에서 11.8조원으로 오히려 5.4% 성장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업금융·투자금융이라는 IBK캐피탈 특유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가계대출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 1-3.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와 핵심 수익원

캐피탈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자동차금융, 기업대출, 소비자금융, 부동산PF, 투자금융, 일반 할부·리스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신용평가가 2023년 9월 기준으로 분석한 16개 캐피탈사 평균 자산 비중을 보면,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자동차금융이 약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대출 18%, 소비자금융 17%, 부동산PF 8%, 투자금융 7%, 일반 할부·리스 5% 순입니다. 자동차금융이 업계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현대캐피탈이라는 거대 캡티브(전속금융사)가 산업 전체의 평균치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며, 실제로 개별 회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수익 구조의 핵심은 대출 이자수익입니다. 캐피탈사는 시장에서 여전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조달금리), 이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하여(운용금리) 그 차이인 순이자마진(NIM)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NIM이 캐피탈사 수익의 70~80%를 차지하는 구간이며, 나머지는 투자금융의 평가·처분손익, 리스·렌탈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보조적 수익원을 형성합니다. IBK캐피탈의 경우 투자자산 평가손익의 비중이 타사 대비 현저히 높는데, 2025년에는 코스피 5,000 호황을 반영하여 투자 평가손익 818억원의 '잭팟'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IBK캐피탈의 투자금융 비중이 높다는 사업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의 흐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Treasury) 단계에서는 여전채 발행, CP 발행, 은행차입,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의 경쟁력은 곧 신용등급과 직결되며, IBK캐피탈의 AA-(안정적) 등급은 국책은행 자회사로서의 높은 지원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개발·영업(Origination) 단계에서는 기업금융, 리스, 할부, 투자금융 등 다양한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을 발굴합니다. 심사·승인(Underwriting) 단계에서는 차주의 신용도, 담보가치, 사업성 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여신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행·관리(Servicing) 단계에서는 약정 체결, 자금 실행, 이자·원금 회수, 연체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회수(Collection & Recovery) 단계에서는 부실채권 관리와 회수를 담당합니다. 일반 분야로 입사하면 이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순환근무를 통해 관여하게 되며, 각 단계의 로직과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직무 역량의 핵심입니다.

### 1-4. 규제 환경의 구조적 대전환

캐피탈 업계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최근 3~5년간 급격히 강화되었으며, 이는 업계의 사업 구조와 전략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입니다. 레버리지 배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또는 총여신)의 비율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적은 자본으로 많은 자산을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과도한 자산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 이 배율을 기존 10배에서 2022~2024년 9배로, 2025년부터는 8배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직전 회계연도 기준 배당성향이 30%를 초과하는 캐피탈사에는 7배가 적용됩니다. 이 규제는 캐피탈사의 자산 확대 여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자기자본이 1조원인 캐피탈사의 경우, 기존에는 10조원까지 자산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8조원(또는 7조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성장세 둔화와 자본 확충 압박을 동시에 유발하며, 특히 자산 규모 확장에 의존해 왔던 캐피탈사일수록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IBK캐피탈의 레버리지 배율은 2025년 기준 5.96배로, 법정 한도 8배를 크게 하회합니다. 이는 향후 약 2조원 이상의 자산 확대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며,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캐피탈 등 레버리지 배율이 규제 상한에 근접한 캐피탈사들은 자산 확장에 직접적인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PF 건전성 규제도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5%에서 시작하여 4년간 10%, 15%,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2개 캐피탈사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의 PF대출 규모는 2024년 말 19.7조원에서 2025년 3분기 16.5조원으로 16.2% 감소하며 정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나이스신용평가의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예상 최대 손실액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규제는 PF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에 특히 치명적이며, 신한캐피탈(NPL 4.51%)이나 하나캐피탈의 실적 부진이 이를 방증합니다. IBK캐피탈은 PF 취급 시 선순위 중심의 보수적 전략을 견지해 왔고, 2023년부터 매년 'PF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PF 리스크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도 캐피탈사의 영업 방식과 내부통제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변화된 규칙 하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캐피탈사가 향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 1-5. 디지털 전환과 AI 트랜스포메이션

캐피탈 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업무 전산화를 넘어 'DX(Digital Transformation)에서 AX(AI Transformation)로'라는 패러다임 전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은 AI전략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AI 기반 리스크 관리·심사 자동화,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FDS), AI 챗봇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대출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하나캐피탈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은 캐피탈 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리스·할부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잔존가치 평가 모델을 요구합니다. 배터리 노화에 따른 잔존가치 변동,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구형 모델의 가치 하락, 충전 인프라와 연동된 부가서비스 등이 전기차 금융의 핵심 이슈이며, 이를 AI로 분석·예측하는 역량이 차세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은 자동차금융 비중이 미미하여 전기차 금융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업금융·투자금융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예를 들어 비대면 팩토링(전자어음매입) 서비스, AI 기반 기업 신용평가 모델, 디지털 투자심사 시스템 등은 IBK캐피탈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IBK캐피탈의 2026년 경영전략에서 'AX·DX 대응'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었고, 채용공고의 필기시험에 '디지털 기초'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대 자격증에 SQLP(SQL Professional)가 명시된 것은 회사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 1-6. 금리 환경 변화와 캐피탈사에 대한 영향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캐피탈 업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조달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신규 여신의 대출금리도 하락하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부정적 효과가 공존합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 포트폴리오가 만기 도래하면서 점진적으로 저금리 신규 대출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NIM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것이 캐피탈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IBK캐피탈의 경우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특성상 금리 변동의 영향이 리테일 중심 캐피탈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업대출은 개인대출 대비 금리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 특성상 은행 대비 높은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 하락기에는 투자자산(주식·채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 투자금융 비중이 높은 IBK캐피탈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1-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면접에서 산업 트렌드를 언급할 때는 단순한 시장 규모 숫자나 성장률 나열보다는 구조적 변화기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레버리지 규제 8배 축소, 부동산PF 정리, AX 전환, 생산적금융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캐피탈 업계의 현재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IBK캐피탈이 타사 대비 건전성 우위를 확보한 배경, 즉 보수적 PF 운용과 기업금융 특화 전략이 이러한 규제 변화 국면에서 왜 유효한 전략적 선택이었는지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으면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캐피탈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 "은행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주요 캐피탈사 비교 및 IBK캐피탈 포지셔닝

#### 2-1. 주요 캐피탈사 6사 재무 실적 비교 분석

국내 캐피탈 업계의 경쟁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 IBK캐피탈을 포함한 주요 6개 캐피탈사의 재무 실적을 비교 분석합니다.

먼저 자산 규모 측면에서 현대캐피탈이 약 39~41조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위 하나캐피탈(약 18.1조원)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KB캐피탈이 약 16.2조원으로 3위, 신한캐피탈이 약 12.4조원, 우리금융캐피탈이 약 12.1조원, IBK캐피탈이 약 11.8조원으로 이 세 회사가 12조원 전후의 유사한 규모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캐피탈이 약 4,459억원(3분기 누적)으로 여전히 1위이지만, IBK캐피탈이 2,456억원으로 금융주계 캐피탈사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KB캐피탈은 2,352억원으로 IBK캐피탈에 근소한 차이로 뒤처졌으며, 우리금융캐피탈은 약 1,150억원(3분기), 신한캐피탈은 818억원(3분기)에 그쳤고, 하나캐피탈은 531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에서 IBK캐피탈의 경쟁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IBK캐피탈의 ROA는 2.16%로, 산은캐피탈(2.17%)과 거의 동일한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현대캐피탈의 ROA가 1.08%, KB캐피탈 1.21%인 것과 비교하면 IBK캐피탈의 자산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신한캐피탈(0.24%)과 하나캐피탈(0.25%)은 1% 미만으로 크게 부진한데, 이는 부동산PF 관련 대손비용과 평가손실이 수익을 크게 잠식한 결과입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IBK캐피탈은 NPL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0.57%로 업계 최상위입니다. 신한캐피탈은 4.51%로 가장 높고, KB캐피탈 2.69%, 우리금융캐피탈 2.26%, 하나캐피탈 1.76% 순입니다. IBK캐피탈의 0.57%라는 수치는 캐피탈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은행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건전성입니다. 신용등급은 IBK캐피탈이 AA-(안정적)이며, 현대캐피탈이 AA+로 최고, 하나캐피탈이 AA, 나머지 KB·신한·우리금융캐피탈은 IBK캐피탈과 동일한 AA-입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IBK캐피탈은 자산 규모에서는 6개사 중 가장 작지만, 수익성(ROA 2.16%, 업계 2위)과 건전성(NPL 0.57%, 업계 1위)에서는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작지만 강한(Small but Powerful)' 캐피탈사입니다. 이는 260명이라는 소규모 인력으로 11.8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인당 생산성이 극대화된 효율적 경영 모델의 산물입니다.

#### 2-2. 사업 특화 영역 비교와 차별적 포지셔닝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각 캐피탈사는 모회사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사업 특화 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별 캐피탈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기아의 전속금융사(캡티브)로서 자동차금융의 절대 강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할부·리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도 가속화하여 글로벌 자동차금융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경쟁력은 현대·기아차와의 수직적 통합에서 비롯되며, 딜러 네트워크와 금융상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시점에서 금융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영업 비용 없이 대규모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KB캐피탈은 중고차금융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의 리테일 채널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산건전성을 대폭 개선하여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자산 규모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의 양축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부동산PF 부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NPL비율이 4.51%까지 급등하였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위험가중자산(RWA)이 대폭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규제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캐피탈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손비용 급증으로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중 최하위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레버리지 배율도 규제 상한에 근접하여 영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IBK캐피탈은 완전히 다른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금융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이 전체 영업자산의 약 96.4%를 차지하는 순수 B2B 특화형 캐피탈사입니다. 이는 국내 캐피탈사 중 유일무이한 사업 구조이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DNA를 그대로 계승한 결과입니다. 리테일 영역이 부재하다는 것은 개인 고객 대상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자, 가계대출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이기도 합니다.

### 2-3. IBK-IBKC Synergy Up의 구조와 실체

IBK캐피탈의 최대 경쟁 우위는 IBK기업은행과의 시너지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나 고객 소개를 넘어, 체계적으로 설계된 보완적 금융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IBK-IBKC Synergy Up'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에서 제도적 규제나 한도 제약으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캐피탈이 지원하는 구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너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턴어라운드 지원으로, 은행 여신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업체에 대해 Biz-Momentum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여 캐피탈 여신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은행 거래를 완전히 잃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둘째, 담보 보완으로, 은행의 담보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캐피탈이 5~10% 상향된 담보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셋째, 제휴 할부·밴더리스로, 은행 거래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할부금융이나 리스가 필요한 경우 캐피탈이 연계 금융을 제공합니다. 넷째, 공동투자자로, 유망 중소기업의 IPO나 성장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은행과 캐피탈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시너지 구조는 IBK캐피탈에 두 가지 핵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고객 파이프라인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반에서 연계되는 고객이 IBK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캐피탈의 핵심 영업 채널입니다. 별도의 대규모 영업 인력이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양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260명이라는 소규모 인력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하나는 리스크 정보의 공유입니다. 은행이 축적한 방대한 기업 신용정보와 거래 이력이 캐피탈의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IBK창공(創工) 혁신 창업 플랫폼과의 연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이 플랫폼에서 발굴·육성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 IBK캐피탈이 투자금융(신기술투자, 메자닌 등)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연속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2-4.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위치 평가

IBK캐피탈의 전략적 위치를 SWOT 프레임워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점(Strengths) 측면에서는 국책은행 100% 자회사라는 압도적 안정성, 중소기업 금융 40년의 전문성과 신뢰, NPL 0.57%·ROA 2.16%의 업계 최상위 건전성·수익성, 소수정예 고효율 경영 모델(1인당 순이익 약 9.4억원), 투자금융 AUM 3.5조원의 IB 역량, 레버리지 배율 5.96배의 충분한 성장 여력이 핵심적 강점으로 꼽힙니다.

약점(Weaknesses)으로는 총자산 11.8조원의 중상위권 규모(상위사 대비 제한적), 리테일(B2C) 영역 완전 부재로 인한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 브랜드 인지도 낮음(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6년 1월 기준 캐피탈 브랜드 평판 11위), 자동차금융 비중 미미로 이 시장의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움, 투자금융 비중 높아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 존재 등이 있습니다.

기회(Opportunities) 측면에서는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 대폭 확대(산은·기은 5년간 550조원), AI·바이오·방산·문화콘텐츠·기후테크 등 신성장산업 투자 수요 급증, 부동산PF 부실 확산 국면에서 건전한 캐피탈사에 대한 시장 선호도 상승,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산 평가이익 기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한도 축소 시 캐피탈 수요 이전 효과 등이 유리한 환경 요인입니다.

위협(Threats)으로는 캐피탈업계 전반적 수익성 둔화(NIM 축소), 레버리지 규제 추가 강화 가능성, 카드사·인터넷은행의 여신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경기 침체 시 중소기업 부실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 모회사(IBK기업은행) 경영 전략 변화에 따른 종속적 의사결정 리스크 등이 경계 요인입니다.

### 2-5. 최근 6개월 업계 주요 이슈와 시사점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의 기간은 캐피탈 업계에 있어 '건전성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시기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신한캐피탈의 부동산PF 부실입니다. NPL비율이 4.51%까지 급등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급증하였고,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18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위험가중자산(RWA) 확대에 레버리지 규제 압박까지 동시에 받고 있어, 자산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나캐피탈 역시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평가손실과 국내 부동산PF 관련 대손비용 급증으로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중 최하위인 53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이 규제 상한에 근접하여 자산 확대 여력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반면 JB우리캐피탈은 2025년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순이익 1위(2,815억원, 전년 대비 +25.7%)를 달성하며 약진하였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자동차금융과 기업금융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IBK캐피탈은 이 기간 동안 역대 최대 순이익 경신(2,456억원)과 함께 '생산적금융 향후 5년간 4조원 공급' 목표를 선언하고, 5대 신성장동력(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당기순이익 401억원으로 기업금융 중심 캐피탈 3사(신한·산은·IBK) 중 1위를 기록하며 실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계 흐름은 캐피탈사들의 자본 확충 경쟁입니다.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주요 캐피탈사들이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이익 유보 강화 등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IBK캐피탈은 무배당 기초 속에서 자기자본 3조원 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조정자기자본비율 17.73%는 업계 최상위권입니다.

### 2-6. 면접 활용 포인트

"IBK캐피탈이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적 가치를 갖는가"라는 질문은 면접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금융 특화라는 사업적 차별성, 둘째는 업계 최상위 건전성이라는 재무적 우수성, 셋째는 소수정예 고효율 모델이라는 경영적 효율성입니다. 특히 신한캐피탈이나 하나캐피탈의 PF 부실 사례와 대비하여 IBK캐피탈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NPL 0.57% vs 4.51%라는 수치로 설명하면 논리적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산규모가 다른 금융지주계 캐피탈 대비 작다"는 잠재적 약점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은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며, IBK캐피탈의 ROA 2.16%는 현대캐피탈(1.08%)의 두 배에 달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효율성'이라는 IBK캐피탈의 핵심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제3장. IBK캐피탈 심층 분석

### 3-1. 40년 업력의 기업금융 전문 여전사

IBK캐피탈의 역사는 1986년 한국기업개발금융(주)의 설립으로 시작됩니다. 약 40년에 걸친 업력은 국내 캐피탈 업계에서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 기간 동안 축적된 기업금융 심사 노하우와 고객 네트워크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무형 자산입니다. 1999년 기은개발금융과 기은할부금융의 합병으로 (주)기은캐피탈이 되었고, 2002년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할부금융업을 추가 등록하며 현재의 종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문창환으로, 2025년 3월에 선임되었습니다. 문 대표는 1965년생,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IBK기업은행에서 36년간 근무한 기업은행 출신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납입자본금은 2,655억원이고, 직원 수는 약 260명입니다. 260명이라는 인원은 총자산 11.8조원, 순이익 2,456억원을 달성하는 조직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수치입니다. 1인당 관리 자산이 약 454억원, 1인당 순이익이 약 9.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되며, 이는 금융업계 전체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의 생산성입니다.

이 소수정예 구조는 IBK캐피탈의 사업 모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캐피탈사(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는 콜센터, 영업점, 디지털 채널 운영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지만, IBK캐피탈은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한 고객 연계가 핵심 채널이므로 별도의 대규모 채널 인력이 불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낮은 판관비율과 높은 ROA로 직결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 3-2. 사업구조: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이 96.4%

IBK캐피탈의 사업 구조는 국내 캐피탈사 중 가장 독특하며, 이 독특함이 곧 IBK캐피탈의 정체성입니다. 전체 영업자산의 약 96.4%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6%가 가계금융(스탁론 등 약 0.4%)과 기타 자산입니다. 이는 자동차금융이 45%를 차지하는 업계 평균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팩토링, CP매입, 사모사채, 인수금융 등을 취급합니다. 중소기업자금대출이 가장 핵심적인 상품이며, 운전자금(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상적 자금)과 시설자금(설비 투자, 공장 증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팩토링은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어음, 외상매출금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기업에 즉시 유동성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IBK캐피탈은 비대면팩토링(전자어음매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기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투자금융 부문에서는 신기술투자, 사모투자(PEF), 메자닌투자를 운영합니다. 이 부문의 성장세가 특히 인상적인데, 투자금융 AUM(운용자산 규모)이 2021년 7,872억원에서 2025년 3조 5,088억원으로 약 4.5배 성장하였습니다. 4년 만에 4.5배라는 성장률은 IBK캐피탈이 단순한 대출 위주 캐피탈사에서 IB(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한 종합 기업금융 회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GP(General Partner) 역량 강화를 통해 투자펀드의 운용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IB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산적금융 자산은 B/S(재무상태표) 기준 2조 3,913억원, AUM 기준 3조 3,182억원에 달하며, 5대 신성장동력 분야인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기후테크에 7,86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금융'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기조로, 부동산이나 단순 소비 분야가 아닌 실물 경제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IBK캐피탈은 국책은행 자회사로서 이 정책 기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 3-3.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의 재무적 기반

IBK캐피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 궤적을 상세히 분석하면 회사의 경쟁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841억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것이 2,142억원으로 16.4%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다시 2,456억원으로 14.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15.5%에 달하는 것입니다.

총자산은 2023년 약 11.0조원에서 2024년 11.2조원, 2025년 11.8조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은 자산 효율성(ROA)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ROA 2.16%는 캐피탈 업계 내에서 산은캐피탈(2.17%)과 거의 동일한 최상위 수준이며,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중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15.46%에서 2024년 17.16%, 2025년 17.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소 기준인 7%를 10%p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자본 건전성의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 6.9배에서 2024년 6.10배, 2025년 5.96배로 하락 추세인데, 이는 자본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의미이며 법정 한도 8배 대비 약 2배의 추가 자산 확대 여력이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도 우수합니다.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023년 0.56%, 2024년 0.22%, 2025년 0.46%로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PL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0.61%, 2024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년 0.73%, 2025년 0.57%로, 2024년에 소폭 상승했다가 2025년 다시 개선되었습니다. 0.57%라는 NPL비율은 캐피탈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시중은행의 평균 NPL비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2025년 실적 호조의 핵심 동인을 3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자산 평가손익 818억원으로, 2025년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주식시장 호황이 IBK캐피탈이 보유한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을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는 IBK캐피탈의 투자금융 비중이 높다는 사업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잭팟'이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성격의 수익입니다. 둘째는 금융자산 순증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로, 기업대출 포트폴리오가 질적으로 개선되면서 이자수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셋째는 대손상각비 감소로, 3분기 누적 기준 대손상각비가 마이너스 14억원(환입 발생)을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대손비용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IBK캐피탈의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실제 부실 발생 최소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2026년 1분기에도 당기순이익 401억원으로 기업금융 중심 캐피탈 3사(신한·산은·IBK) 중 1위를 기록하며 실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4. 신용등급 AA-와 자본 안정성의 구조적 기반

IBK캐피탈의 무보증사채(여전채) 신용등급은 AA-(안정적)으로,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사 모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은 두 가지 요인의 결합입니다. 하나는 IBK캐피탈 자체의 재무 건전성(높은 수익성, 낮은 NPL, 충분한 자기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IBK기업은행(정부 지분 50%+ 보유 국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라는 계열 지원 가능성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의 위기 시 지원 가능성을 등급에 반영하는데,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이므로 그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AA- 등급의 실질적 의미는 자금 조달 비용에 직결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여전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며, 이는 곧 조달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NIM(순이자마진) 개선에 기여합니다. 현대캐피탈(AA+)이나 하나캐피탈(AA) 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KB캐피탈·신한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과 동일한 수준이며, 중소형 캐피탈사들(A+~A- 등급)과는 2~3단계 차이가 납니다.

IBK캐피탈은 무배당 기초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전액 내부 유보하여 자기자본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3조원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2.4조원 수준인 자기자본이 3조원에 도달하면 레버리지 8배 기준으로 24조원까지 자산 확대가 가능해져 사업 영역의 대폭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실적도 보유하고 있어, ESG 금융에 대한 실적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 3-5. 리스크 요인: 관리 가능하나 경계 필요한 3가지

IBK캐피탈의 리스크 요인을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부동산PF 리스크는 '중간~관리 가능'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IBK캐피탈은 PF 취급 시 선순위 중심의 보수적 전략을 견지해 왔으며, 2023년부터 매년 'PF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PF 부문 요주의 여신은 1,083억원으로 전년 말 2,386억원 대비 54.6%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리스크감리부를 신설하여 기존 리스크총괄부에서 감리업무를 분리, 독립성을 확보하는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였습니다. PF 자산 관리에 있어 '정조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실 전이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비중 96.4%로 다변화가 부족하며, 특정 산업이나 거래처에 대한 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융 비중이 높아 주식시장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변동성이 큼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 호황으로 818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역으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IBK캐피탈 실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셋째, 모회사 종속 리스크도 인식해야 합니다.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도 은행 출신이 선임되는 구조이므로, 모회사의 경영 전략 변화나 정책 방향 전환이 IBK캐피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부의 국책은행 정책 방향(예: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축소)이 간접적으로 IBK캐피탈의 사업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속성은 안정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이기도 합니다.

### 3-6. CEO 문창환의 경영 비전과 2026년 전략 방향

문창환 대표는 2025년 3월 IBK기업은행 부행장에서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 36년간 근무하며 기업금융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은행-캐피탈 간 시너지 강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실행력이 기대되는 인사입니다.

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더 탄탄한, 그리고 단단한 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대 경영 키워드는 Top-tier(업계 최상위권 도약), Co-work(IBK금융그룹 시너지 강화), Healthy-Workplace(성과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는 면접에서 경영진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소재입니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자기자본 3조원, 순이익 3,000억원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약 2.4조원, 순이익 2,456억원에서 각각 25%와 22%를 추가 성장해야 도달하는 목표이며, 현재의 성장 추세(연평균 약 15%)가 유지된다면 1~2년 내 달성 가능한 범위입니다.

2026년 전사 슬로건은 "흔들림 없는 미래, 탄탄하고 단단하게"입니다. 이 슬로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 차원의 '흔들림'에 대한 대비입니다. 시장의 흔들림(금리 변동, 경기 불확실성)에는 리스크관리 고도화로, 미래의 흔들림(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변화)에는 AX-DX 대응으로, 내부의 흔들림(조직 문화, 내부통제)에는 준법·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문 대표가 단행한 주요 경영 변화로는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중점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하였으며, 이는 소수정예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또한 생산적금융 5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본격 확대하면서도, GP 역량 강화를 통해 단순 재무적 투자자(LP)에서 적극적 운용 참여자(GP)로 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IBK캐피탈을 언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프레임은 "소수정예로 업계 최고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효율 모델"입니다. "자산규모가 크다" "안정적이다"라는 피상적 언급은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대신 "260명이 11.8조원을 운용하면서 ROA 2.16%를 달성하는 것은 1인당 약 9.4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금융업계 전체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이라는 수준의 구체적 분석을 보여줘야 합니다.

CEO 경영 키워드(Top-tier, Co-work, Healthy-Workplace)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되, 단순 나열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op-tier를 위해서는 기업 금융 영업 현장에서 고객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학에서의 재무분석 경험이 이 역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생산적금융 5대 신성장동력 중 관심 분야 1~2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매우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AI 산업에 대한 투자금융은 전통적인 재무 분석만으로는 사업성 평가가 어렵고, 기술 이해도와 시장 전망에 대한 통찰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와 같은 수준의 발언이 가능하면 신입사원 지원자로서는 매우 차별화됩니다.

### 제4장. 인재상·조직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 4-1. IBK 핵심가치 4대 키워드의 실제 의미와 채용에서의 적용

IBK캐피탈은 별도의 자체 인재상을 공개하기보다 IBK금융그룹 핵심가치를 인재 판단의 최상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채용공고 자격요건의 첫 번째 항목에 "IBK핵심가치(고객과 함께,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웍)에 부합하는 인재는 누구나 지원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 4가지 핵심가치 각각이 캐피탈사의 실제 업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채용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고객과 함께'는 IBK그룹 핵심가치 중 최상위 목표가치입니다. 여기서 '고객'은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IBK캐피탈의 기업금융 영업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나 CFO를 직접 만나 재무 상황을 진단하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객과 함께'는 단순한 서비스 마인드가 아니라, 고객 기업의 사업 구조, 재무 상태, 성장 잠재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최적의 금융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전문가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가치를 자기소개서에서 표현할 때는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뢰와 책임'은 금융업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면서, 캐피탈사에서는 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신(대출)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돈(투자자의 자금)을 고객에게 빌려주는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은 절대적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고 방지, 내부통제 준수, 이해충돌 방지, 고객 정보 보호 등이 이 가치와 직결됩니다. 2026년 경영전략에서도 준법·내부통제·윤리경영 체계 강화가 명시되어 있어, 이 가치에 대한 조직적 강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정과 혁신'은 도전정신과 자기혁신을 의미합니다. 캐피탈 업계가 구조적 변환기에 있고, IBK캐피탈이 AX·DX 대응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린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금융(신기술투자, 메타닌 등) 영역이 급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의지도 이 가치와 연결됩니다. 신입사원에게 "혁신"이라는 거창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소통과 팀웍'은 약 260명의 소규모 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IBK캐피탈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투자관리부서, 자금부서, 경영지원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나의 여신 건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한 건의 기업대출이 실행되려면 영업 담당자가 고객을 발굴하고, 심사 담당자가 신용을 평가하며, 자금 담당자가 실행 자금을 배정하고, 법무 담당자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조직이므로 부서 간 벽이 낮고 소통이 빈번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조직 전체의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4-2. 면접 평가 기준에서 읽어내는 핵심 역량 코드

2026년 채용공고에 명시된 논술 및 면접전형의 평가 항목은 "창의력, 논리력, 협상력, 친화력 등에 대한 평가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및 가치관, 인성, 입사이지,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입니다. 이 문구를 분석하면 IBK캐피탈이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의 우선순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의력'과 '논리력'이 함께 언급된 것은 사고의 질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캐피탈사의 기업금융은 은행의 표준화된 여신 상품과 달리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맞춤형 구조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담보가 충분하지만 재무비율이 취약하고, B기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벤처라면, 각각에 적합한 금융 구조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비정형적 상황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창의력'이며, 그 해법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논리력'입니다.

둘째, '협상력'이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캐피탈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캐피탈사 영업 현장에서는 기업 고객과의 금리 협상, 담보 조건 협상, 상환 일정 협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 심사부서 간에도 '이 건을 승인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을 둘러싼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상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중시됩니다.

셋째, '친화력'은 대인관계 역량을 의미하며, 특히 기업금융 영업에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자사의 재무 상황을 낯선 사람에게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형성되어야 기업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어야 적절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 친화력입니다.

넷째, '입사이지'와 '조직적합성'은 IBK캐피탈이라는 특정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왜 다른 캐피탈사가 아닌 IBK캐피탈인가", "왜 은행이 아닌 캐피탈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며, 이는 본 리포트 전체의 분석 내용이 바로 그 답변의 소재가 됩니다.

### 4-3. 조직문화: 공기업적 안정성과 성과 지향의 공존

IBK캐피탈은 정부 지분 50% 이상의 국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공기업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공채 중심의 정기적 채용,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필기전형, 호봉제 급여 체계 등 공기업형 인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 보장에 대한 높은 기대와 안정적인 급여 수준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잡플래닛 기준 총 평점 3.8/5.0, 워라밸 점수 4.0/5.0, 기업 추천율 78%는 금융권 내에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조직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강점과 함께 개선 과제도 인식해야 합니다. 사내문화 점수 2.9/5.0과 경영진 점수 2.8/5.0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규모 조직 특성상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260명 조직에서는 부서별 업무 강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소수 핵심 인력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책은행 자회사로서의 보수적 의사결정 문화가 때로는 경직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모회사 인사 파견(대표이사 등)에 따른 내부 인사 상한선 인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창환 대표가 취임 후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Healthy-Workplace, 성과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명시한 것은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성과 기반 보상 체계 강화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에서 "IBK캐피탈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경우, 공기업적 안정성이 주는 장기적 커리어 설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되, 동시에 CEO가 강조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균형 잡힌 답변입니다. "안정적이어서 좋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정적 기반 위에서 도전적으로 성장하고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싶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 4-4. 캐피탈업계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의 공통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인재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는 IBK캐피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 업계 전반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역량과 행동 패턴입니다.

첫째, 리스크 감수성(Risk Sensitivity)입니다. 여신(대출)이 핵심 업무이므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출을 거절하면 부실은 없지만 수익도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대출을 승인하면 수익은 크지만 부실도 급증합니다.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능력이 리스크 감수성이며, IBK캐피탈의 NPL 0.57%와 ROA 2.16%라는 수치가 바로 이 균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입니다. 캐피탈사 면접에서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리스크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리스크 감수가 수익의 원천"이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숫자 감각과 재무분석력입니다. 캐피탈사의 일상 업무는 숫자로 시작하여 숫자로 끝납니다. 재무제표 해석(매출액, 영업이익, EBITDA,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금리 계산(스프레드, NIM), 담보비율 산출(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수익성 분석(IRR, ROI) 등이 모두 일상적 업무입니다. 특히 기업금융에서는 재무제표 3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지식이 아니라 "이 기업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력입니다.

셋째, 영업마인드와 관계 구축 역량입니다. 캐피탈사는 수신 없이 여신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므로, 양질의 대출 고객을 발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생명선입니다. IBK캐피탈의 경우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핵심 고객 연계 채널이지만, 직접 고객 발굴도 병행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무적 니즈를 파악하여 적절한 금융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영업 담당자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는 공격적인 '영업사원'의 이미지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주치의(Financial Doctor)로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가적 영업을 의미합니다.

넷째, 규제 이해력과 준법 감각입니다. 금융업은 가장 규제가 강한 산업 중 하나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등 적용되는 법규가 방대합니다. 규제 위반은 단순한 벌과금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영업 정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 과정에서 준법을 내재화하는 것이 캐피탈사 직원의 기본 요건입니다.

IBK캐피탈에 특화된 추가 요건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IBK그룹의 존재 이유), 기업금융·투자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회사 영업자산의 96.4%), 디지털 역량(AX·DX 전략 대응, 필기시험 '디지털기초' 과목, SQLP 우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강조는 채용공고의 우대 자격종에 SQLP가 명시된 것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4-5. 인사제도와 경력개발 경로의 구체적 설계

IBK캐피탈의 인사제도는 신입사원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식 인사제도 설명에 따르면 "사원급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책임자부터는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부서배치"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이는 입사 후 2~3년 단위로 영업부서, 심사부서, 경영지원부서 등을 순환하며 여신금융의 전체 가치사슬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환근무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보다는 전체적인 시야와 다기능적 역량을 우선시하는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합니다.

승진은 인사고과와 연수성적을 기반으로 하며, 급여 체계는 호봉제에 경영실적 연동 성과급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른 안정적 급여 상승을 보장하고, 성과급은 개인·부서·전사 실적에 연동되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IBK캐피탈의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은 성과급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 훈련 체계도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입사원 입문 연수를 시작으로, OJT(On-the-Job Training) 및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사이버연수, 직무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외 직무연수,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캐피탈사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으로는 CFA, FRM,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SQLP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격증 취득은 전문성 입증과 승진·인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4-6. 면접 활용 포인트

IBK 핵심가치 4가지를 단순히 암기하여 나열하는 것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각 가치가 캐피탈사의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소통과 팀웍'을 언급할 때는 "영업부서가 발굴한 딜을 심사부서와 협업하여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부서 간의 건설적 소통이 핵심이며, 이는 제가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팀원들과 협업하며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는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혁신'은 "비대면 팩토링이나 AI 기반 기업 신용평가 같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제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배수가 64배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필기전형이 합격의 핵심 관문이 됨을 의미합니다. 필기전형은 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경영·경제, 디지털기초, 시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3개 영역의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기초'는 타 금융 공기업 필기에서는 흔치 않은 과목이므로, IBK캐피탈이 디지털 역량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반영한 차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5장. 일반분야 직무 분석

### 5-1. 4그룹 5본부 27부 2센터의 조직 체계와 신입 배치

IBK캐피탈은 4그룹 5본부 27부 2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그룹 산하에 경영전략부, 경영지원부(인사·총무·법무·준법감시), 자금부, IT부가 있습니다. 영업지원그룹 산하에는 금융심사부, IB심사부, 투융자관리부가 위치합니다. 기업금융그룹은 기업금융1본부(기업금융1부, 기업금융2부, 여의도금융센터)와 기업금융2본부(기업금융3부, 기업금융4부, 을지로금융센터)로 나뉩니다. IB그룹 산하에는 투자금융 관련 부서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종합금융본부는 리스·할부·부동산담보대출·스탁론·팩토링 등 개별 금융상품 운영을 담당합니다.

일반분야로 입사하면 IT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서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2~3년 단위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며, 신입사원은 통상적으로 기업금융 영업부서(기업금융1~4부 또는 여의도/을지로 금융센터)에 먼저 배치되어 현장 경험을 쌓은 후, 심사부서(금융심사부 또는 IB심사부)로 이동하여 심사 역량을 축적하고, 이후 경영지원, 자금부, 투융자관리부 등으로 순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력 경로로 추정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이러한 순환근무 구조는 신입사원에게 두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하나는 초기 배치 부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 배치되든 2~3년 후에는 다른 부서를 경험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여신금융의 전체 가치사슬을 이해하는 다기능 인재로 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부서에 배치되든 해당 부서의 업무를 열심히 배우면서 동시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에 배치되어도 심사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여신을 심사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영업 과정에서 심사 승인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가져오는 효율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 5-2. 기업금융 영업의 일상: "은행이 못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기업금융 영업부서의 핵심 업무는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영업하는 것입니다.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연계받는 고객이 핵심 파이프라인이며, 은행 한도 초과, 신용등급 일시 하락, 자금용도 제한,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은행 거래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IBK-IBKC Synergy Up'의 현장 실행입니다.

하루 단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으로부터 고객 연계 건을 접수하거나, 직접 발굴한 고객 기업의 문의에 대응합니다. 기존 거래 기업의 여신 만기 연장, 추가 대출 문의, 거래 조건 변경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메일, 전화, 대면 미팅이 주요 소통 채널이며, 기업 대표이사나 CFO와의 직접 소통이 빈번합니다. 오후에는 기업 방문(현장실사)을 나가거나, 사무실에서 재무제표 분석, 사업성 검토 보고서 작성, 심사 서류 준비에 집중합니다. 현장실사는 기업의 실제 사업 현장(공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서류상의 정보와 현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부서 내 파이프라인 회의가 핵심입니다. 각 영업 담당자가 진행 중인 건의 현황을 공유하고, 잠재 고객 리스트를 검토하며, 심사 부서에 제출할 건의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팀장(부서장)의 코칭과 피드백이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선배 직원의 경험적 노하우가 후배에게 전수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월간 단위로는 취급 실적 정산과 신규 고객 발굴 전략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월의 신규 대출 취급액, 회수액, 순증감을 집계하고, 부서별 목표 대비 달성률을 점검합니다.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 분석과 전략 논의가 시작됩니다. 연간 단위로는 사업계획 수립, 목표 설정, 인사고과가 진행되며, 전사적으로는 여신 포트폴리오 점검, 업종별·지역별 리스크 분석, 신사업 기회 탐색 등이 이루어집니다.

일반분야 신입사원이 첫 1~2년 동안 가장 많이 수행하게 될 업무는 재무제표 분석과 심사 서류 작성 보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배 영업 담당자가 발굴한 고객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신입사원의 핵심 학습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 신용분석의 기본기를 익히고,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영업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 5-3. 여신심사의 세계: 독립적이고 정교한 판단

금융심사부와 IB심사부는 영업부서가 올린 여신(대출/투자) 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영업부서의 영업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리스크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독립성은 캐피탈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며, IBK캐피탈이 심사본부를 별도 그룹으로 편성하고 산하에 금융심사부, IB심사부, 투융자관리부의 3개 부서를 배치한 것은 이 독립성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심사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로 차주(대출을 받는 기업) 신용분석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3개년 분석(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지표), 신용등급 평가(외부 신용평가사 등급 + 자체 평가모형), 사업성 검토(업종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전망, 경쟁 환경, 기술력 등)가 핵심 항목입니다. 둘째로 담보평가가 있습니다. 부동산, 기계설비, 유가증권, 예금, 신용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담보에 대해 시가 평가를 실시하고, 처분 가능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담보 인정 비율을 산정합니다. 셋째로 현장실사 보고서 검토입니다. 영업부서가 작성한 현장실사 결과를 심사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누락된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넷째로 금리·한도 산출이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 담보 종류, 대출 기간, 시장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대출 금리와 한도를 산출합니다. 다섯째로 심사보고서 작성과 여신심사위원회 상정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은 여신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합의제로 의결합니다.

IBK캐피탈은 "영업일선부터 책임자까지 수시로 리스크를 고려해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가 심사부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업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가 공유하는 조직 차원의 DNA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NPL 0.57%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부실비율을 가능하게 한 근본 원인입니다.

### 5-4. 투자금융(IB)의 핵심 업무와 성장 기회

IBK캐피탈에서 투자금융(IB) 부문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며, 일반분야 입사자도 순환근무를 통해 이 부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융 부문의 핵심 업무는 신기술투자(벤처·스타트업 지분투자), 사모투자(PEF 조성 및 운용), 메자닌투자(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중간위험 투자)로 구분됩니다.

신기술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캐피탈사 고유 업무로, 기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합니다. IBK창공 플랫폼에서 발굴되는 기업이 주요 파이프라인이며,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5대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모투자(PEF)는 다수의 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IBK캐피탈은 GP(General Partner, 펀드 운용자) 역량 강화를 통해 단순 재무적 투자자에서 적극적 운용 참여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 AUM이 2021년 7,872억원에서 2025년 3조 5,088억원으로 약 4.5배 성장한 것은 이 부문에 대한 회사의 전략적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분야 입사자 중 금융공학,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산업 분석 역량을 갖춘 인재를 투자금융 부서로 순환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일반적인 여신 업무와는 차별화된 IB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5-5. 이해관계자 맵: 내부와 외부의 복합적 네트워크

일반분야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광범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업부서와 심사부서 간의 상시적 협업이 가장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영업부서가 고객을 발굴하고 딜을 가져오면, 심사부서가 독립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부결/조건부 승인'을 둘러싼 건전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며, 이 긴장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투융자관리부는 실행된 여신의 사후관리(연체 관리, 기한 연장, 담보 재평가 등)를 담당하며, 자금부는 여신 실행에 필요한 자금 배정과 전사 자금 운용을 총괄합니다. 경영전략부는 사업계획과 KPI를 설계하고, 경영지원부는 인사·법무·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수행합니다.

외부적으로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가장 중요한 접점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전국 영업망은 IBK캐피탈의 고객 연계 채널 역할을 하며, 은행 영업점 직원과의 관계 구축이 영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 기업(중소·중견기업 대표, CFO)과의 직접 소통은 영업의 핵심이며, 신뢰 관계 형성이 장기적 거래의 기반이 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규제 기관으로서 검사·감독의 대상이 되며,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자율 규제와 공동 이슈 대응의 창구입니다. 신용평가사(NICE, KIS, KR)는 기업 신용등급 평가와 IBK캐피탈 자체의 회사채 등급 평가에 관여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벤처, 스타트업)은 투자금융 부문의 핵심 파트너이며, 채권투자자·기관투자자는 IBK캐피탈이 발행하는 여전채를 매입하는 자금 제공자입니다.

### 5-6. 필요 역량의 3층 구조

일반분야에 필요한 역량은 기술/지식 역량, 소프트스킬, 디지털 역량의 3개 층위로 구분됩니다.

기술/지식 역량의 핵심은 재무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B/S), 손익계산서(P/L), 현금흐름표(C/F)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능력, 재무비율 분석(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ROE, ROA 등), 기업가치평가(DCF, Comparable, Precedent Transaction 등) 등이 포함됩니다. 여신심사 역량으로는 신용분석, 사업성 평가, 담보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계 지식(K-IFRS 기본, 세무 기초), 금융상품 이해(대출, 리스, 할부, 팩토링, CB/BW 등 메자닌 구조), 법률 기초(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경제·산업분석(거시경제 흐름, 금리 동향, 업종별 경기 사이클) 등도 포함됩니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 기업 대표·CFO와의 전문적 상담,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과의 협업 소통, 심사부서·경영진에 대한 내부 보고 등 다양한 수준과 맥락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적으로 요구됩니다. 협상력은 금리·한도·조건에 대한 고객과의 협상, 영업-심사 간 의견 조율에 필수적입니다. 문제해결력은 비정형적인 기업금융 딜을 구조화하고, 고객의 복잡한 재무적 니즈에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필요합니다. 논리력과 분석력은 심사보고서, 투자 검토의견서 등 내부 문서 작성의 기본입니다. 팀워크는 260명 소규모 조직에서 다부서 협업이 빈번한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필기시험에 '디지털기초' 과목이 포함되고, 우대 자격증에 SQLP가 명시되어 있으며, 경영전략에 AX:DX 대응이 강조되는 만큼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능력(Excel 고급 함수, SQL, 기본 통계),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비대면 여신, 전자계약, 블록체인 등), AI/머신러닝 기초 지식(신용평가 모형, 텍스트 마이닝 등)이 포함됩니다.

### 5-7. 성과 지표(KPI)로 추론하는 평가 기준

캐피탈사의 부서별 성과 지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 관행과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의 KPI는 취급 실적(신규 대출/투자 금액)이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월간·분기간·연간 단위로 목표 대비 달성률을 평가합니다. 신규 고객 확보 수도 중요한 지표이며, 이는 기존 고객 거래 유지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NIM, 스프레드)은 취급액의 양적 지표를 보완하는 질적 지표로, 같은 금액을 취급하더라도 더 높은 스프레드를 확보하는 영업이 높이 평가됩니다. 취급 건의 자산건전성(연체·부실 발생률)은 사후적 평가 지표로, 자신이 영업한 건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부정적 평가로 이어집니다.

심사부서의 KPI는 심사 정확도(승인 건 중 부실 전환율)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승인한 건이 부실로 전환되면 심사 실패를 의미하며, 반대로 부결한 건이 실제로는 우량 기업이었다면 영업 기회 손실을 의미합니다. 심사 처리 시간(TAT, Turn-Around Time)도 중요한데, 심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면 고객이 경쟁사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성 관리 지표와 심사보고서의 논리적 완성도도 평가 대상입니다.

경영기획/지원부서는 사업계획 달성도, 프로젝트 완수율, 준법·내부통제 관련 지표(감사지적 건수, 규제 위반 건수), 자금조달 효율성(발행 금리, 조달 다변화) 등으로 평가됩니다. IB 투자부서는 투자 수익률(IRR), 회수율, 포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트폴리오 건전성, 신규 펀드 조성 규모 등이 핵심 KPI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2년차에는 독립적 KPI보다는 학습 진도, 자격증 취득, 업무 태도, 팀 기여도 등이 평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3년차 이후부터는 독립적 영업 실적이나 심사 건수 등 정량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 5-8. 대표 업무 시나리오: 기업대출 1건의 생애주기

일반분야 신입사원이 경험하게 될 업무의 전체 흐름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설명합니다.

1단계(고객 접촉)는 IBK기업은행 A지점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래 중인 B제조업체가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해 시설자금 50억원이 필요한데, 은행 한도가 초과하여 캐피탈 연계를 요청합니다." 영업 담당자는 B기업의 기본 정보(업종, 매출, 기존 은행 거래 현황)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2단계(사전 상담·서류 수집)는 B기업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미팅합니다. 공장 증설의 목적, 예상 매출 증가 효과, 기존 차입금 현황, 제공 가능 담보 등을 확인하고,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3단계(심사 요청)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신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심사부에 제출합니다. 재무분석 초안, 현장실사 보고서, 담보 평가 의견, 영업 담당자의 종합 의견서가 포함됩니다.

4단계(독립 심사)에서는 금융심사부가 영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재무분석을 재검토하고, 자체 신용등급 모형에 따라 차주등급을 산정하며, 담보가치를 재평가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별도의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적정 대출 금리와 한도를 산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단계(여신심사위원회 의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은 여신심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심사 담당자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원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승인/부결/조건부 승인이 결정됩니다.

6단계(약정·실행)에서는 승인이 나면 B기업과 대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금부가 실행 자금을 배정하여 B기업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담보 설정(근저당권 등기 등)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7단계(사후관리)에서는 투융자관리부가 대출 실행 후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자·원금 회수, 담보 상태 점검, 차주의 재무 상태 정기 모니터링, 기한 연장·조건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조기 대응 프로세스가 작동합니다.

이 7단계의 전 과정을 순환근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며, 각 단계의 로직과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여신금융 전문가로 성장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 5-9. 면접 활용 포인트

직무 관련 질문에 대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기업대출 심사 프로세스의 전체 흐름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7단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캐피탈사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과 심사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업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부서는 "이 건을 취급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심사부서는 "이 건의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가"를 판단합니다. 이 두 관점의 균형이 캐피탈사의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IBK캐피탈의 NPL 0.57%와 ROA 2.16%가 이 균형의 성공적 결과입니다.

또한 IBK캐피탈이 자동차금융이 아닌 기업금융·투자금융 특화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캐피탈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사 = 자동차 할부"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IBK캐피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과 벤처투자가 핵심 업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면, 회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한 지원자로 인식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은행이 아닌 캐피탈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이 가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캐피탈사의 존재 이유이며, IBK캐피탈은 국책은행 자회사로서 이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IBK캐피탈 회사개요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01>
2. IBK캐피탈 CEO인사말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02>
3. IBK캐피탈 조직도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04>
4. IBK캐피탈 주요경영지표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09>
5. IBK캐피탈 재무현황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10>
6. IBK캐피탈 신용등급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12>
7. IBK캐피탈 인재상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21>
8. IBK캐피탈 인사/복리후생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022>
9. IBK캐피탈 보도자료 — <https://www.ibkc.co.kr/ib20/mnu/MNUPCKCOMP114>
10. IBK캐피탈 **2026** 채용공고(인크루트) — <https://ibkc.incruit.com/hire/viewhire.asp?projectid=106>
11. 자소설닷컴 IBK캐피탈 채용 — <https://jaseol.com/recruit/103354>
12. 자소설닷컴 IBK캐피탈 기업정보 — <https://jaseol.com/companies/2310/insights>
13. 한국금융신문 **IBK캐피탈** 역대 최대 실적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516371881178a55064dd1\\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516371881178a55064dd1_18)
14. 한국금융신문 **IBK캐피탈** 경영전략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1181353323639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1181353323639dd55077bc2_18)
15. 한국금융신문 **캐피탈사** 리그테이블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61611224817616a663fbf34\\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61611224817616a663fbf34_18)
16. 한국금융신문 **IBK캐피탈** 기업금융 전문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3110108504581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3110108504581dd55077bc2_18)
17. 한국금융신문 **캐피탈** 생산성 랭킹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7091355069883237391cf86\\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7091355069883237391cf86_18)

## 심층 분석 보고서: IBK캐피탈-일반분야

18. 한국금융신문                      **JB우리캐피탈**                      **순이익**                      **1**  
위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2417422854976a663fbf34\\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2417422854976a663fbf34_18)
19. 한국금융신문                      **캐피탈**                      **2024**                      **이**  
슈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0658459559dd55077bc2\\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90658459559dd55077bc2_18)
20. 더벨                      **캐피탈사**                      **수익성**                      **분**  
석 —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06041459126640101387>
21. 더벨                      **IBK캐피탈**                      **재무구**  
조 —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newskey=202506300833186160101958>
22. 더벨                      **IBK캐피탈**                      **부동산PF**                      **관**  
리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4090805507360107276>
23. 더벨                      **IBK캐피탈**                      **조직**                      **개**  
편 —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09181512095800104178>
24. 더벨                      **캐피탈사**                      **재무구조**                      **점**  
검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180800063800109077>
25. IB토마토 캐피탈 건전성 분석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5266>
26. IB토마토 IBK캐피탈 리스크관리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6145>
27. 아시아타임 여전업권 2026 전망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1229500305>
28. 뉴스1 레버리지 규제 —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4217181>
29. 이코노미리뷰                      **기업금융**                      **리스**  
크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510>
30. 링커리어 IBK캐피탈 채용 — <https://linkareer.com/activity/314259>